



2003 한중 테크노마트 참가업체 모집

2003 한중테크노마트는 中國普天(China Putian), 華爲技術(Huawei Technology), 中興通訊(ZTE) 등 중국의 50대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한중 양국 정부지원 상담회로 중국진출에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개 요

- 개최일시 : 2003. 08. 20(수) ~ 21(목)
- 개최장소 : 서울 코엑스
- 개최목적 : 기술 및 상품 수출입, 합작투자, 공동R&D, 전략적 제휴 등
- 참가기업 : 중국측 상세명단 재단 홈페이지(www.kotef.or.kr) 게재
※ 중국측 분야별 50대기업 대거 참가(총 38개 업체) - Telecom(9개), Electronics(10개), Biomedicine(9개), Aviation(6개), Environmental(4개)

■ 행사일정

- 8월 20일 : 개회식, 기술설명회, 일대일 상담회 (개회식 참가업체 점심 무료제공)
- 8월 21일 : 일대일 상담회

■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한 : 2003. 08. 16(토) 18:00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www.kova.or.kr)를 작성 후 담당자 E-mail로 송부
- 문 의 : 한국산업기술재단 국제협력팀 박윤경 프로젝트 매니저
(02-6009-3145/3148, FAX 02-6009-3187/88 E-mail : pool@kotef.or.kr)

미 5대호 인근주 무역사절단 참가업체 모집

한미경제협의회는 미5대호 인근주와의 상호교역 및 투자증대를 위해 미시간, 인디애나, 일리노이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현지기업들과 개별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업체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개 요

- 파견기간 : 09. 22(월) ~ 09. 30(화) (8박 9일)
- 파견지역 : 미시간, 인디애나, 일리노이(3개주)
- 파견규모 : 참가희망업체 20개사
- 파견업종 : 철강, 자동차, 기계, Biotech, IT 등(품목제한 없음)
- 참가경비 :
- 참가기업 부담: 항공임, 체재비, 비자 수수료 등 개별경비
- 무역협회 지원: 상담장 운영, 통역, 브로슈어 제작 등 공통경비

■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한 : 2003. 08. 16(토)까지,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www.kova.or.kr) 작성 후 담당자 E-mail 또는 FAX로 송부

■ 문 의

- 한미경제협의회 이정은(02-6000-3367, Fax: 02-6000-3365, E-mail : jenna21c@kotis.net)

코스닥등록기업 종합지원센터 오픈

코스닥 등록기업, 제3시장 지정기업 및 등록준비기업의 재무 및 경영관련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상담 및 서비스 센터인 코스닥등록기업 종합지원센터(www.kosdaqonline.com)가 지난달 22일 문을 열었다.

코스닥등록기업 종합지원센터는 기업들에게 재무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회계, 법률, 재무, 공시 등의 제반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원만한 기업경영을 돕기 위해 개설됐다.

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회원대상은 등록기업, 지정기업, 우량 미등록기업 등이다.



㉞ 벤처기업특별조치법개정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지난 6월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위원장 윤진식)에서 심의·의결된 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장·차관회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돼 처리될 경우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환해 전략적 제휴 등을 할 수 있는 대상기업 범위를 현행 벤처기업에서 다른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요주주로 확대했고, M&A 활성화를 위해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를 주주총회 이전으로 단일화했다.

또 벤처기업이 전략적 제휴 등의 목적으로 주식교환을 통해 다른 법인으로 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평가기관이 그 주식을 평가한 때는 평가내용을 상법상 공인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기로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23일까지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042-481-4387)로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㉞ 중기벤처 자금난 해소 위해 프라이머리 CBO 2조 발행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모두 2조원 가량의 자금이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를 통해 공급된다.

재정경제부(장관 김진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150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이달부터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바탕으로 발행되는 프라이머리 CBO에 대해 보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프라이머리 CBO는 기업이 발행한 3년 만기 회사채를 인수해 발행하게 되며 기업의 부담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8~11%선의 금리를 적용하고 기업당 회사채 발행한도는 100억원이다.

재경부는 8월 말부터 매월 두 차례씩 CBO를 발행해 연말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총 2조원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되는 금액의 3분의 1은 IT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전국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언론에 비친 벤처

한국일보

벤처 "힘들수록 힘모으자"



▲ 벤처 재도약을 위해 실질적인 정보교환과 공동 활동을 위한 벤처인 모임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다시 붐을 이루고 있는 분야별 벤처기업 모임을 자세히 소개한 기사
(2003년 7월 22일자 한국일보 중기벤처 연)

전자신문



▲ 21세기 브랜드소사이터에 맞춰 개별기업은 브랜드 자산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고유의 문화를 담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를 만들자는 내용을 담은 협회 장훈순 회장의 기고문
(2003년 7월 31일자 전자신문 오피니언 연)